PF Market Trend

<제29호>
2010. 3.

플랜트금융부

주 요 내 용

Ⅰ. 글로벌 PF시장의 최근 동향 및 전망

Ⅱ. 금융위기 이후 중남미 PF시장 동향

Ⅲ. 중동 PF시장의 동향 및 전망

Ⅳ. 에너지 기업 M&A 동향

Ⅴ. 단신 및 주요 프로젝트 동향

- AfDB, 아프리카 인프라 펀드에 €15백만 투자
- 에콰도르 Manabi 정유설비 프로젝트, SK건설 FEED 단독수주
- 사우디 Yanbu 정유설비 프로젝트,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 Nord Stream 가스관 건설사업, 금융종결
- ExxonMobil, XTO Energy 총 U$410억에 인수

I. 글로벌 PF 시장의 최근 동향 및 전망

<*플랜트금융부 플랜트금융 1팀 심사역 김응화 (☎6375)*>

· 2009년 글로벌 PF 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상업금융의 시장 참여가 부진하면서 전반적인 침체 지속

· 그러나 2009년 하반기 들어 상업금융 시장이 다소 호전되고 글로벌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향후 PF 시장은 점차 안정화되고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

· 한편, 상업 금융기관들의 PF시장 참여 위축으로 인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MDB 및 ECA의 비중이 커졌고, 2010년에도 이러한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2009년 글로벌 PF 시장은 전반적으로 부진

○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인해 2009년 PF 시장 규모는 2008년 대비 약 38% 감소*

* U$2,840억 (2008년) → U$1,760억 (2009년)

○ 2008년 9월 Lehman Brothers의 파산을 기점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상업금융의 시장 참여가 부진하면서 PF 시장이 전반적으로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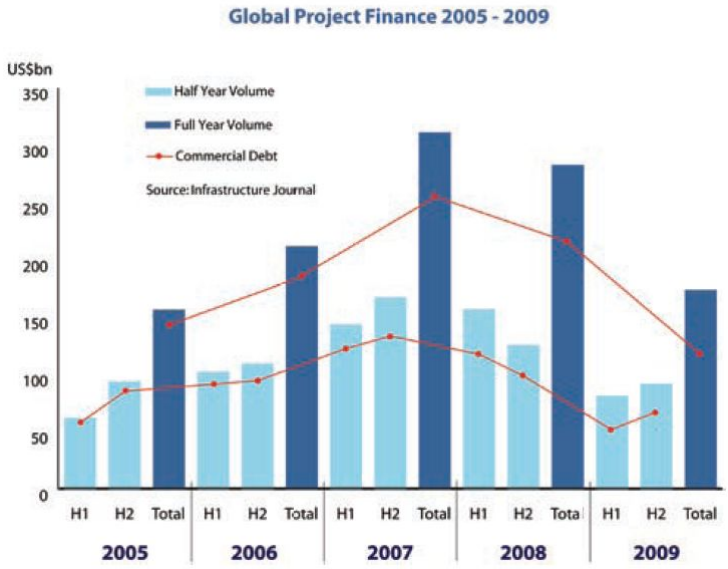
<2009년 PF 시장 주요 현황>

구 분	상반기	하반기	합 계	전년대비 증감률
규모(Volume)*	U$810억	U$950억	U$1,760억	△38%
사업 수(Deal Count)	247건	250건	497건	△27%
차입금(Debt)	U$510억	U$690억	U$1,200억	△45%

* 총사업비용(자본금 + 차입금)

자료: Infrastructure Online, 2010.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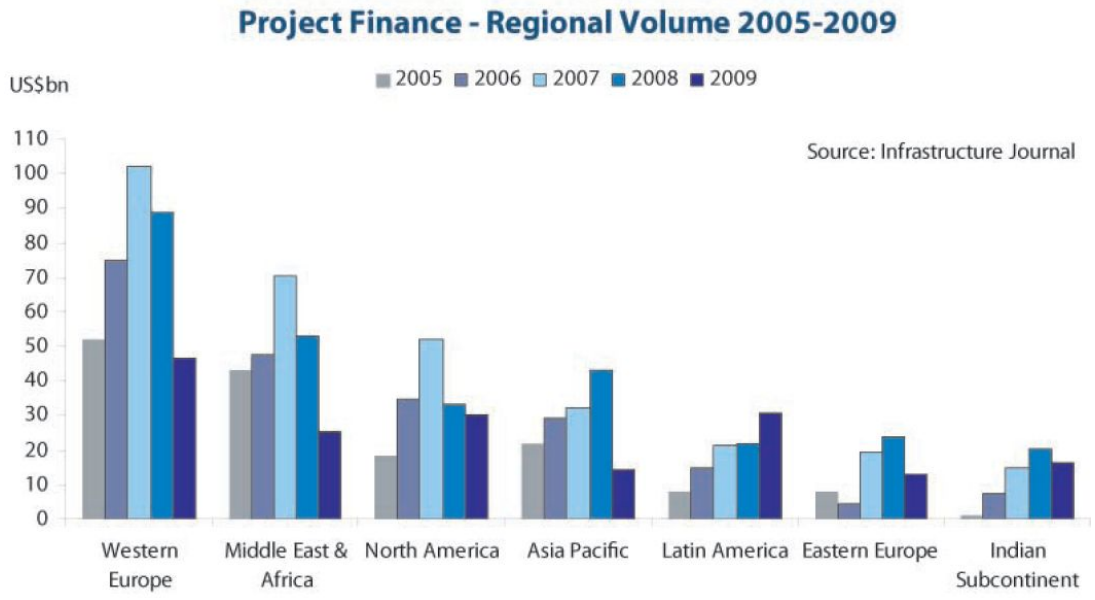
<2005 ~ 2009년 글로벌 PF 시장 규모 및 차입금 추이>



○ 그러나, 2009년 하반기 들어 상업금융 시장이 다소 호전되면서 상반기 대비 PF시장 규모와 Commercial Loan 규모가 소폭 증가

■ 2009년 글로벌 PF 시장의 지역별 분석 및 전망

<2005 ~ 2009년 지역별 PF 시장 규모 추이>



자료: Infrastructure Online, 2010. 2

□ 금융위기로 서유럽, 중동·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PF시장이 크게 위축

○ **(중동·아프리카)** 전년 대비 52% 감소한 253억불의 시장규모를 기록하였으며,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유가하락과 투자심리 위축으로 인해 주요 분야인 원유·가스 산업에 PF 지원이 부진하였으나, 하반기 들어 유가가 회복세를 보이고 도로·전력·수자원 등의 기초 인프라 산업에 대한 강한 투자수요 및 정부의 확고한 지원의지로 인해 PF시장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

○ **(아시아 태평양)** 시장규모는 최근 5년 중 가장 저조한 146억불로, 호주 프로젝트가 전체의 절반 이상 차지

○ **(북미)**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10% 감소한 300억불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견조한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미국은 오바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정책 지원으로 인해 해당 분야 PF 시장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

○ **(중남미)**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41% 증가한 307억불로서,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브라질의 에너지 관련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수송·전력·인프라 등의 분야의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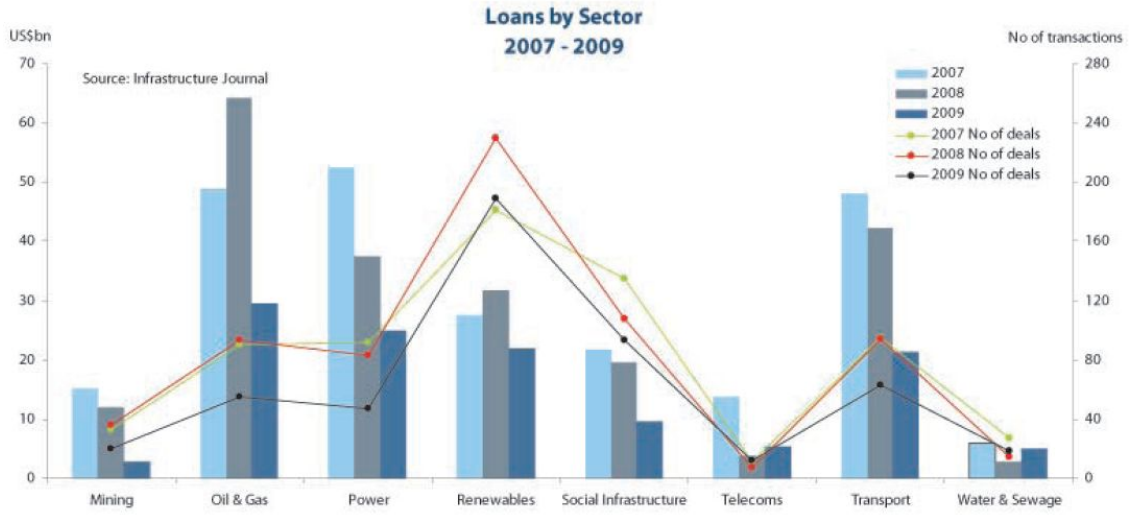
○ **(서유럽)**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48%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가장 크고 성숙된 PF 시장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특히,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거래를 중심으로 스페인이 시장 주도

○ **(인도)** 대규모 발전 사업과 수송산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견조한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향후 인도정부의 수송부문에 대한 투자 증대 계획으로 인해 동 분야에 대한 PF 지원이 활발할 것으로 전망. 한편, 인도 PF 시장은 인도중앙은행의 지원을 바탕으로 현지 상업은행들이 주도

○ **(동유럽)**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PF 지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EIB 및 EBRD의 금융지원을 바탕으로 폴란드, 루마니아, 터키 등에서 PF 거래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

■ 2009년 글로벌 PF 시장의 산업별 분석 및 전망

<2007 ~ 2009년 산업별 PF 시장 규모 추이>



자료: Infrastructure Online, 2010. 2

□ 통신 및 상·하수도 산업만 2008년 대비 증가세를 나타낸 반면, 기타 산업분야는 모두 총사업규모 면에서 전년 대비 위축된 실적을 기록

○ **(원유·가스)** 지원규모 면에서 전년 대비 60% 감소한 375억불을 기록하며 전체 산업 가운데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으나, 주요한 몇몇 대규모 거래들이 성사되었고 2010년에도 대규모 프로젝트들에 대해 PF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

○ **(발전)** 전년 대비 21% 감소한 PF 지원 실적을 기록했고 브라질이 총 6개, 126억불 규모의 발전 프로젝트를 성사시키며 시장을 주도. 이 가운데 두 건은 지난해 세계 최대 규모의 PF 지원 프로젝트인 Santo Antonio 수력발전소 건설사업(54억불)과 Jirau 수력발전소 건설사업(51억불)임.

○ **(신재생에너지)**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서유럽 지역이 전체 시장의 62%를 차지하며 시장을 주도했으며, 각국의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 정도가 향후 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

○ **(수송)** 2008년 대비 35% 감소한 370억불의 시장규모를 기록하며 전체 PF 시장의 21%를 차지

○ **(인프라)** 전년 대비 44% 감소한 125억불의 시장규모를 기록했으며, 76개의 프로젝트를 성사시킨 서유럽 지역이 전체시장의 64%를 차지하며 동 시장을 주도

○ **(통신 및 상·하수도)** 통신산업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GSM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작년 대비 39% 증가한 실적을 보였으며, 상·하수도 산업은 호주의 Victorian 프로젝트에 힘입어 작년 대비 87% 상승한 실적을 기록. 이들 분야의 시장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지만, 향후 신흥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견고한 성장이 예상

<2009년 산업별 주요 PF 사업>

(U$백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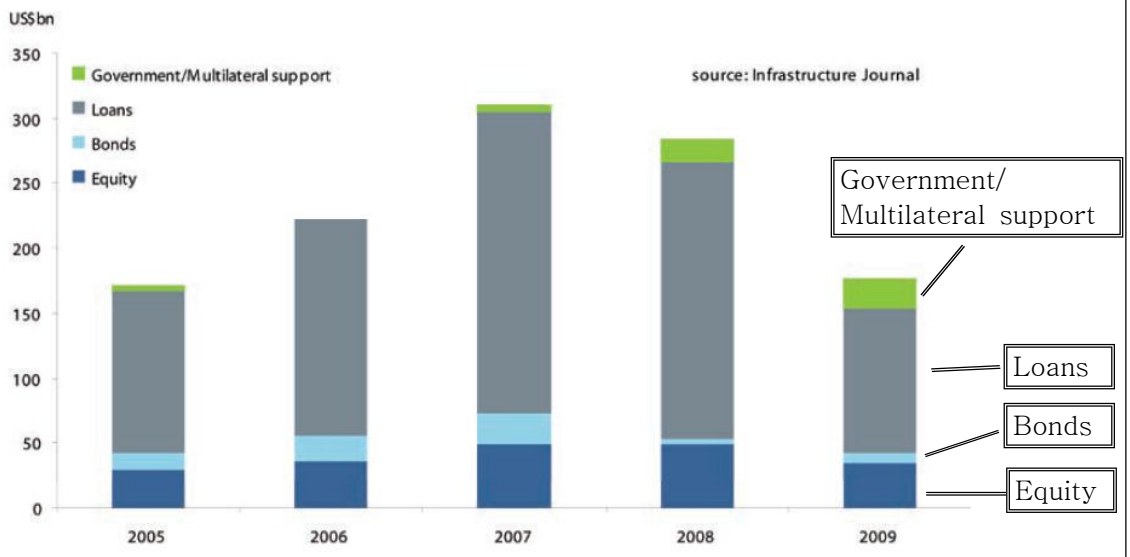
산 업	프 로 젝 트	국 가	총사업비용	금융종결일
원유·가스	Dolphin Energy 2009 Refinancing	오만, 카타르, UAE	4,113	2009. 7월
	RasGas 3 Tranche Ⅲ	카타르	3,186	2009. 7월
발전	Santo Antonio Hydroelectric Plant	브라질	5,409	2009. 3월
	Jirau Hydropower Plant	브라질	5,150	2009. 6월
신재생에너지	Iberwind Portfolio Refinancing 2009	포르투갈	1,512	2009. 6월
	Palma Saetilla Long-Term Financing	스페인	1,280	2009. 12월
수송	Berlin Brandenburg International Airport	독일	3,976	2009. 6월
	Gatwick Airport Sale	영국	3,149	2009. 12월
인프라	Zayed University PPP	UAE	1,159	2009. 11월
광물	Minera Esperanza Sierra Gorda Mine	칠레	2,300	2009. 5월
통신	Aircel GSM Expansion Financing	인도	2,228	2009. 7월
상·하수도	Victorian Desalination PPP	호주	3,984	2009. 11월

■ 2010년 글로벌 PF 시장 및 ECA 금융 전망

○ 2009년 하반기부터 상업금융 시장이 호전되고, 투자심리가 회복되면서 2010년 PF 시장은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

○ 2010년은 PNG LNG 프로젝트, Nord Stream Pipeline, Jubail Refinery 프로젝트 등 대규모 원유·가스 프로젝트(mega deal)가 예정되어 있고, 유럽 지역 등 전통적 PF 시장이 빠르게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2005 ~ 2009년 PF 사업 Funding Source의 규모 및 비중>



자료: Infrastructure Online, 2010. 2

○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상업금융기관들의 PF시장 참여 위축으로 인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MDB 및 ECA의 비중이 2007년부터 크게 커지고 있으며, 2010년에도 이러한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또한, MDB 및 ECA의 참여는 유동성 공급은 물론 프로젝트의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도 수행하는 등 PF 시장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

○ 하지만 이들 기관에 내재되어 있는 관료주의적인 시스템과 프로젝트의 사회·환경·구매 이슈에 대한 엄격한 지원기준으로 인해 프로젝트 진행의 속도가 느려지고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보수적인 운영이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프로젝트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와 위험을 사전에 경감할 수 있는 장치로 작용

○ 이들 기관은 최근 대출·보증·보험 등 전통적 역할 외에도 펀드참여 등을 통한 사업 발굴 및 프로젝트 초기 위험 인수, MLA 역할 수행, 하이브리드 채권* 등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한 적극적인 프로젝트 지원 등 새로운 역할 확립에 주력

* 채권처럼 매년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고, 주식처럼 만기가 없으면서도 매매가 가능한 신종자본증권으로,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 성격을 지님

- IFC는 초기자본투자, 타당성분석, 재무모델 작업 등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 대한 투자와 위험인수에 집중하기 위해 1억 유로 규모의 InfraVenture 펀드를 설립

- AfDB는 430만 유로 규모의 Lake Turkana 풍력발전 프로젝트에서 300만 유로의 차입금 부분에 대한 MLA역할을 수행

○ 금융시장이 호전되어 상업금융기관의 시장 참여가 활발해지더라도, 이러한 MDB 및 ECA의 시장보완역할과 새로운 역할 등에 대한 사업주의 수요는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전망

<2009년 MDB 및 ECA의 개발도상국 PF 지원 실적>

(U$백만)

순위	MDB · ECA	Exposure	순위	MDB · ECA	Exposure
1	JBIC/NEXI/DBJ	4,867	5	China Exim	1,500
2	US-EXIM	3,200	6	IADB	1,331
3	**KEXIM/KEIC**	**2,226**	7	KfW/DEG/Hermes	901
4	SACE	2,125	8	IFC	824

자료: Project Finance International, 2010. 1

< Source: Infrastructure Online, 2010. 2, PFI 2010. 1 >

Ⅱ. 금융위기 이후 중남미 PF 시장 동향

<*플랜트금융부 플랜트금융 2팀 심사역 김동환 (☎6398)*>

· 중남미 PF시장 규모는 '09년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08년(U$218억)에 비해 41% 성장한 U$307억에 달함.

· 이는 유럽 및 아시아계 ECA 금융지원의 증가, 특히 중국 ECA 금융지원 대폭 증가, IFC 및 IDB 등의 혁신적 유동성 증대 프로그램의 성공적 정착, ECA와 상업금융기관의 협조융자 등에 기인

· '10년에도 ECA 및 MDB 금융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증가와 상업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금융위기에도 불구, '09년 중남미 PF시장 41% 성장

○ 중남미 지역은 최근 5년간 브라질, 칠레, 멕시코 등에서의 원유, 가스 등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힘입어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

○ 특히,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하여 '09년중 유럽, 중동, 북미, 아시아 등에서의 PF규모가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PF시장은 U$307억을 기록하며 전년도 U$218억 대비 41% 성장

- 브라질의 수력 발전 프로젝트(Santo Antonio U$54억, Jirau U$51.5억), 칠레의 광산 프로젝트(Minera Epreranza Sierra Gorda U$23억), 멕시코의 천연가스 터미널 프로젝트(Manzanillo U$9억) 등

<'09년 중남미 PF시장 규모 및 주요 프로젝트 현황>

Sector	Total Value(U$Mil)	Top Deal of Each Sector	Location	Value(U$Mil)	Financial Close
Power	14,079	Santo Antonio Hydroelectric Plant	Brazil	5,409	2009-03-04
Oil&Gas	6,075	Odebrecht Drilling Norbe VIII & Norbes IX	Brazil	1,680	2009-10-09
Transport	4,871	Rodoanel oeste Western Section PPP Long-Term Financi	Brazil	1,468	2009-12-03
Mining&Metals	4,451	Minera Esperanza Sierra Gorda Mine	Chile	2,300	2009-05-15
Renewables	1,158	Brenco Brazil 168MW Ethanol Power	Brazil	577	2009-02-03
Water&Sewage	76	Aguas do Amazonas Expansion PPP	Brazil	76	2009-02-10
Social Infrastructure	44	San Luis Potosi University PPP	Mexico	44	2009-09-01

<*Source : Infrastructure Journa(2010. 2)*>

■ ECA와 IFC 등 국제금융기구의 금융 참여 지속

○ 투자등급(BBB) 미만의 국가가 많은 중남미 지역 프로젝트에 대하여, ECA와 IFC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원(공적금융) 참여 지속

< '09년 ECA 및 국제금융기구 참여 주요 프로젝트 >

(U$백만)

프로젝트명	총사업비	공적금융 지원액	참여 기관
Rodoanel Oeste Wetern Section PPP Long-Term Financing	1,468	300	JBIC, IDB
Minera Esperanza Sierra Gorda Mine	2,300	650	JBIC, EDC, KfW
Manzanillo LNG	876	262	한국수출입은행
Odebrecht Oil Platform	1,680	439	한국수출입은행, GIEK, Eksportfinans

☞ '08년 중남미 PF : 상업금융 65%, 공적금융 35%
(동기 전세계 PF : 상업금융 91%, 공적금융 9%)

○ ECA와 상업금융기관들이 자금공급원으로서 새로운 협조융자방식을 개발·발전시킴. 즉, 금융위기 이후 엄격한 리스크관리를 위해 상업금융기관들은 기존의 독자적인 신용보강(Credit Enhancement) 조치에 ECA 직접대출 등을 끌어들인 협조융자 및 Refinancing 방식 등을 도입

○ IFC(국제금융공사)의 GTFP*(Global Trade Facilitation Programme)의 최대 수혜지역은 중남미로, 수혜금액이 GTFP 전체 지원금액의 40% 기록(중동 및 아프리카 17%)

- GTFP 보증은 중남미와 같은 신흥 개도국시장과 은행 등의 금융기관(특히 스페인 및 아시아계 은행들이 활발히 참여)을 서로의 신규거래처로 이어주는 역할 수행

* IFC의 유동성공급 프로그램(GTFP)으로 GTFP보증 커버하의 대출은 Basel Ⅱ의 적용을 받지 않아 금융기관들의 리스크 한도관리 문제를 완화

■ 중국의 對중남미 관련 거래 금융지원

○ '09년 중국과 중남미의 상호간 교역 및 투자규모, 빈도가 크게 증가

- 중국수출입은행과 중국산업은행이 신흥 개도국시장에서 새로운 자금 공급원으로 크게 부상하고 있으며, Petrobras, Telemar, America Movil 등 중남미지역의 블루칩들에 대한 공격적인 금융지원 추진

(예) 중국산업은행, Petrobras 앞 U$100억 대출지원. 이의 반대급부로 Petrobras는 중국 국영 Sinopec사의 자회사인 Unipec Asia 앞 원유공급

■ '10년 중남미 PF시장 전망

○ 규모가 비교적 큰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조달은 기존의 채권발행, 현지 금융 뿐만 아니라 상업금융기관·ECA· MDB간 well-structured 협조융자의 성공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

○ 상업금융기관들의 Syndication 시장 또한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겠으나, Club Deal 방식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ECA 및 MDB와의 협조융자 및 Refinancing, 짧은 대출기간의 Mini-perm structure* 등이 주된 금융조달방식이 될 전망

* 금융위기 이후 상업금융기관의 리스크 축소움직임에 따라 대출기간을 단기인 5~8년으로 하여 만기시점에 만기연장 혹은 Refinancing을 하는 PF금융방식

☞ <중남미 PF시장 전망 요약>

i) 사업주들의 ECA금융지원에 대한 수요 증가

ii) 상업금융기관들의 ECA금융과의 well-structured 협조융자 및 Refinancing에 대한 수요 증가

iii) 상업금융기관들의 GTFP Guarantee(IFC) 등의 MDB 금융지원에 대한 수요 증가

<Source: Trade Finance(2010. 2), Infrastructure Journal >

Ⅲ. 중동 PF 시장의 동향 및 전망

<*플랜트금융부 플랜트금융 3팀 심사역 오정태 (☎6417)*>

· '09년 11월 두바이 월드의 채무지불 유예 선언에도 불구, 중동국가 재정 상태 호전 및 이슬람 은행권의 유동성 확보로 '10년 PF 시장 회복 전망

· 이러한 기대 속에 향후 은행권의 대출증가 및 기업체의 투자 확대는 PF 시장의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 한편,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 지역의 건설비용 및 인력비용 하락은 사업주 우위의 마켓 트랜드를 형성하였으며, 플랜트 시장의 수요 증가 예상으로 아국기업의 수주 기회도 증가 예상

■ 중동 지역의 PF 시장 동향

○ '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지속으로 침체됐던 중동지역의 PF 시장은 '10년 경제회복 기대와 함께 회복세를 보이며 신규 계약도 활발히 진행

○ 특히, 건설비용의 하락으로 사업주의 이익이 증가하며 '10년 신규 계약 수주 예상 사업은 U$5,000억을 초과하고 있으며, 계약자 및 사업주는 에너지 및 석유화학 분야의 사업이 활발할 것으로 전망

- IMF는 '10년 중동 지역의 경제성장률이 '09년 대비 2.2% 상승한 4%에 이를 것으로 전망

○ 한편, 현재 지연 중인 사업 또한 U$6,240억에 달하며,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 속에 동 사업의 재추진도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되는 바, 30% 가까이 하락한 건설비용과 인력비용이 사업 이익을 크게 확대시킬 전망

- '08년 7월 최고조에 달했던 시멘트와 알루미늄 등의 원자재 가격은 30% 하락하였으며, 콘크리트 보강용 강철봉(Rebar)의 경우 약 70% 하락

중동지역 PF 사업 추진현황

국 가	신규 사업*(U$억)	지연 사업(U$억)
UAE	2,139	4,440
사우디아라비아	946	401
이란	350	48
쿠웨이트	252	408
요르단	227	11
카타르	219	79
오만	216	65
이라크	191	203
바레인	87	91
이집트	61	205
기타	370	289
합 계	5,058	6,240

* 사전심사, 입찰, EPC 계약자 선정 단계 포함

■ 건설비용 하락으로 인한 사업 활성화

○ '09년 7월 시간당 U$85에서 '09년 8월 시간당 U$40으로 50% 이상 하락한 건설비용은 사업비용의 절감 뿐 아니라 사업기간 단축에도 기여

○ 저렴한 건설비용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에 최적의 시기이나, 향후 경제회복, 원자재 수요량 증가 및 고용시장 안정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이러한 상황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전망

- 특히, GCC(Gulf Cooperation Council)는 에너지 사업이 두각을 나타낼 것이며, 걸프만 6개국의 에너지 개발 계획에 따라 '10년 계약 발주금액은 U$1,000억에 이를 전망
- 현재까지 발표된 향후 발주 예상금액은 '11년 U$480억, '12년 U$90억, '12년 이후 U$190억이며, 추가 사업 발표시 동 금액은 늘어날 예정

■ 사업주 우위의 PF 시장 트랜드

○ '09년 이후 사업주들은 프로젝트의 재입찰을 통하여 기존 사업비용 대비 낮은 입찰가격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사전 심사단계에서도 가격 경쟁력이 있는 업체 리스트의 확보가 가능하여 사업주 우위 현상 지속

○ 중동지역은 전 세계에서 에너지 사업이 가장 활발히 추진되는 지역이며, 이는 계약자 간 과열 경쟁을 야기, 결국 계약 수주를 위하여 최소한의 마진을 제시해야 수주가 가능한 악순환 발생

- '09년 2월 배럴당 U$32이던 원유 가격은 '09년말 U$80에 달하며 2배 이상 상승, 정유회사의 생산설비 추가 투자 가능성 제고
- '10년 6월까지 U$210억의 석유화학 계약이 UAE에서 체결될 예정이며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에서 '12년까지 U$400억 상당의 계약 발주 전망

○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공 인프라 건설 사업은 '10년에도 지속될 예정이며, U$401억의 지연사업 중 King Abdullah Financial District 사업 및 주요 철도 사업인 Saudi Landbridge 사업은 민간 계약자 선정을 통해 추진 예정

■ 신용회복으로 인한 신규 사업 확대

○ '10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공공사업이 우위를 차지하는 한편, 민간 분야 또한 '09년 하반기 대출금 증가 및 신용회복으로 점차 회복세에 있음

- 은행은 적극적 투자보다는 예상 가능한 현금흐름에 기초한 대출집행을 선호, '10년 1분기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보수적 태도 유지

○ 카타르의 경우 정부의 강력한 지원 하에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은 '10년 3분기까지 U$1,496억으로 늘어날 전망

○ 카타르 최대사업인 Mesaieed Port 사업 및 Al-Shaheen 정유사업은 카타르 정부의 지원으로 추진 예정

- Mesaieed Port 프로젝트는 카타르 도하 남쪽 Mesaieed 지역 20km^{2}에 달하는 심해 항구를 건설하는 사업(총사업비 U$600억)으로 EPC 계약은 '10년 2분기 중 체결 예정
- Shaheen 정유사업(EPC 계약금액 U$110억)*은 '10년 4분기 계약 체결 예정으로, Mesaieed 항구에 인접한 산업단지 내 정유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임.

* 현대건설, 대림산업, SK건설 등 국내업체 3곳 포함 총 20여개 업체 입찰 참여 예상

<Source: Meed, e-KIET 산업경제정보 제465호>

Ⅳ. 에너지 기업 M&A 동향

<*자원금융부 에너지금융팀 심사역 이재경 (☎5346)*>

· 지난 2년간 위축되어 있던 메이저 에너지 기업의 M&A 활동이 최근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탐사·개발사업보다는 인수를 통한 개발권 확보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에 기인

· 비전통적 자원이 인수합병의 중요한 테마로 부각되기 시작하여 '09년 M&A 비용의 40% 수준을 차지

·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기술발전에 따른 광구 확대에 힘입어 에너지 M&A 시장이 활성화되고, 특히 국영 석유기업의 M&A 활동이 더욱 강화될 전망

■ 최근 메이저 에너지 기업의 M&A 증가 추세

○ 대형 에너지 기업의 인수합병 활동은 지난 2년간 위축되어 있었으나 최근 증가 추세로 전환

- 자원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구매자들은 글로벌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원유가격의 변동성, 유동성 제한 등으로 인해 관망세 유지

  * 이에 따라 '07년 336건, '08년 285건, '09년 224건으로 원유·가스사업 M&A 거래수 감소

- 경기회복과 원유가격 안정세에 따라 '09년 4/4분기 Upstream M&A의 거래건수(월 30~40건)가 1/4분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 탐사·개발사업보다는 개발권을 이미 확보하거나 새로운 채굴기술을 소유한 중소규모 기업을 인수하는 경향 뚜렷

- 각 국의 자국 자원시장 보호 및 환경 관련 규제 강화에 따라 선진국의 신규시장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등 탐사·개발사업의 리스크와 비용이 증가

- 경제성이 저평가되어 왔으나 원유·가스에 대한 채굴기술 발전에 따라 개발비용이 낮아진 광구에 대한 개발권 매입 추세 확산

■ 기술발전에 따른 비전통적 자원에 대한 관심 증폭

○ 호주 탄층가스*(coal seam gas), 캐나다 오일샌드, 미국 셰일 가스 등 채굴기술 발전에 힘입어 수익성이 향상된 비전통적 자원이 부상

* 석탄층 틈 사이에 응축된 메탄가스로서, 습기를 제거하고 압력을 낮추어 공기 중으로 방출시킨 후 정제과정을 거쳐 LNG로 변환 사용

호주 탄층가스와 전통가스의 비교

구분	전통가스	탄층가스
광구 성질	심도 1,000~4,000m, 해양에 위치	심도 200~1,000m
개발 위험	범용성이 적은 해양 설비 및 가스 불순물 제거 설비 등 필요	복잡한 설비를 요하지 않고 설비 범용성도 높음
운영 위험	해양 위치로 인한 기후·지형의 외재적 위험 요소 상존	주로 넓은 평지에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위험 요소가 적음

○ 비전통적 천연가스 생산이 각광받고 인수 열풍이 고조되면서 2009년 Upstream M&A 비용 중 비전통적 자원 관련 인수합병의 비중이 약 40% 수준을 차지

○ 셰일 가스가 차세대 에너지로 부상함에 따라 관련 M&A 활성화

- ExxonMobil, XTO Energy*에 대한 총 U$410억 인수 발표(2009. 12.)

  *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업체로, 셰일 및 탄층가스 탐사 등에 주력하는 비전통적 원유·가스자원 개발·생산·판매업체

- Total, Chesapeake Energy*의 Barnett 셰일 가스전 지분인수(2010. 1.)

- BP의 CEO B. Hayward, "셰일층에서 추출되는 가스는 향후 100년간 미국 에너지의 판도를 바꾸는 자원이 될 것"(다보스 포럼, 2010. 1.)

■ M&A 활성화와 유럽 유틸리티 기업의 시장참여 확대 전망

○ 2010년에는 원유의 수요 증대 및 가격 안정, 경기회복 등이 M&A 활성화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Wood Mackenzie는 최근 원유 수요 증대와 경제성장 회복에 따라 브렌트 원유 가격이 2010년에는 배럴 당 U$79 수준, 장기 추세로는 U$70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추측
- 최근 혹한의 날씨에도 가스와 전력 가격의 약세 등 가격 불확실성과 비용 상승 압력이 상존함에 따라, 메이저 기업의 대형 M&A보다는 비용절감을 위한 중소기업인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 몸집 불리기식의 무리한 인수합병보다는 자금확보 및 레버리지 관리와 개발권 획득을 병행할 것으로 예상

○ 2004년 이후 유럽 유틸리티 기업*이 에너지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사례 증가

* 영국 Centrica(천연가스, 전력, 에너지 공급업체), GDF Suez(유럽 최대 천연가스 수입 및 판매업체), 프랑스 전력공사 EDF 등

- Centrica, 2009년 Venture Production(영국 석유·가스 탐사업체) U$23억에 인수
- 초기 탐사 단계 가스 및 미체결 가스의 인수자 역할도 수행

■ 국영 에너지기업의 M&A 활동 증가

○ 각국의 자원확보 경쟁에 따라 국영 에너지기업의 인수합병 참여 증가

- 우리나라 KNOC, 중국 Sinopec, 콜롬비아 Ecopetrol, 인도 ONGC 등 자원공기업의 M&A 부문 투자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
- 특히, 중국의 Sinopec은 최근 스위스 Addax Petroleum*을 U$90억에 인수하는 등 공격적인 M&A 활동을 보이며 광구 및 개발권 확보에 매진

* 스위스 제네바에 본사를 두고 나이지리아와 가봉, 이라크 쿠르드 지역 등지에서 활동하는 시추 및 개발 기업

- 향후 타국 시장진입의 정치적 장애, 공기업으로서의 기회 제한 등으로 인해 법인 인수 방식보다는 중소규모 자산 인수와 같은 거래 방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Ⅴ. 단신 및 주요 프로젝트 동향

■ AfDB, 아프리카 인프라 펀드에 €15백만 투자

○ Argan Infrastructure Fund(AIF)* 는 최근 African Development Bank(AfDB)로부터 €15백만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데 성공

* 모로코의 BCME 은행이 펀드 스폰서이며, 아프리카 지역에 중점 투자

○ AIF는 총 €200백만을 투자 자금으로 모집할 계획(금번 1차 모집에선 €75백만 예상)이며, EIB/ IFC와 같은 국제 금융기관들도 일정금액 투자할 것으로 기대

○ AIF는 기금의 약 40%를 모로코 지역에, 30%는 북아프리카 지역(알제리, 이집트 등), 나머지 30%는 서아프리카 지역 등에 투자할 계획

○ AIF는 기업 민영화 방식의 거래 뿐 아니라 그린필드 및 브라운필드*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에너지, 항만, 통신, 운송, 폐기물 처리 등의 사업이 주요 투자 대상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

- 그린필드 : 현지에서 직접 새로운 공장을 건립해서 추진하는 방식

- 브라운필드 : 기존 기업 및 공장 등을 헐값에 인수하되, 투자자의 목적에 따라 철저히 개조하여 신설효과를 거두는 방식

■ 에콰도르 Manabi 정유설비 프로젝트, SK건설 FEED 단독 수주

○ 지난 3월 6일 SK건설이 U$2.6억 규모의 정유공장 기본설계(FEED, Front-End Engineering And Design)를 단독 수주하고 계약 체결

○ 정유공장의 기본 설계분야는 주로 미국, 유럽 등의 선진 업체에서 독점적으로 수주해 온 점을 고려할 때, 금번 SK건설의 FEED 단독 수주는 향후 한국 건설업체의 중남미지역 대규모 플랜트 건설 수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SK건설은 FEED Contractor로 선정됨에 따라 내년 중반 본 공사 계약의 EPC업체로 선정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으며,

○ SK건설이 FEED Phase 및 EPC 계약에 복합적으로 참여하게 될 경우, 시공과정에서 일류 선진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차원에서 큰 의의를 지닐 것으로 기대

△ **Equador Manabi 정유설비 프로젝트**

- 프로젝트 내용 : Equador의 Manabi 지역에 일산 30만 배럴의 정유공장 설비 신설 프로젝트
- 사업주 : Petroequador, PDVSA(Petróleos de Venezuela S.A.)
- 총사업규모 : U$126억
- 공사완료 : '13년 12월 예정

■ 사우디 Yanbu 정유설비 프로젝트,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 총 127억불 규모의 사우디 Yanbu 정유설비 프로젝트의 사업주인 Saudi Aramco와 Conoco Phillips가 상업은행에 '10년 3월 17일까지 대출의향서 제출 요구

○ 차입금(총 U$83억)은 상업은행 28억불, ECA 금융 22억불, 사우디기금 22억불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잔여 부채는 Capital Market으로부터 조달 예정

○ 한편, 지난 1월 실시된 EPC 입찰 결과, Hydrocracker(GS건설, U$12억), Coker(삼성엔지니어링 - 일본 치요다 컨소시엄, U$12억), Crude Processing Facility(현대건설, U$10억), 저장탱크(한화건설, U$5억) 등 다수의 Package에서 한국기업이 최저가 입찰한 것으로 알려짐.

○ 하지만, 사업주는 EPC 비용 절감을 위해 2, 3위 입찰업체와도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10년 2분기 중 최종 수주자 발표 예정

△ 사우디아라비아 **Yanbu** 정유설비 프로젝트

- 프로젝트 내용 :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Saudi Aramco)와 미국 민간 에너지 회사(Conoco Phillips)가 합작으로 사우디 서부 홍해 연안 Yanbu 산업단지에 일산 40만 배럴 규모의 신규 정유설비를 건설하는 프로젝트
- 총사업비용 : U$127억 (부채 U$83억, 자본금 U$44억)
- 사업주 : Saudi Aramco, Conoco Phillips
- 생산제품 : 디젤(263천 bpd), 가솔린(88천 bpd), 코크(6천 bpd), 벤젠(3천 bpd) 등
- EPC계약: 총 18 EPC Package, 경쟁입찰 방식으로 '10년 2분기 중 낙찰자 선정 예정
- 원료공급 : Saudi Aramco (30년 장기공급계약)
- 제품구매 : Saudi Aramco (50%) / Conoco Phillips (50%)
- Financial Advisor : Citi Group

■ Nord Stream 가스관 건설사업, 금융종결

○ '10년 3월, 러시아에서 독일까지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39억유로 규모의 Nord Stream 가스관 건설사업 금융조달이 성공적으로 종결될 예정

○ 동 사업은 총 연장 1.2천km, 공급능력 550억㎥의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로, '10년 2월 발트해 경유 구간에 대한 핀란드 정부의 승인을 마지막으로 덴마크, 스웨덴, 러시아, 독일 등 관련국 승인이 최종 완료

○ Gazprom(러, 51%), EON 및 BASF(독, 30%), GDF Suez(프, 9%) Gasunie(네, 9%)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12년 완공을 목표로 '10년 4월 착공 예정

△ **Nord Stream**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 개요

- 프로젝트 내용 : 러시아-독일을 연결하는 가스관 건설사업
- 총사업비용 : 55억유로 [차입금 €39억(70%), 자본금 €16억(30%)]
- 사업주 : Nord Stream 컨소시엄 (Gazprom 外 4개 업체)
- ECA 금융 : 16년, Hermes(€16억), UFK*(€10억), Sace(€5억) 등 총 31억유로
  * UFK : German United Loan Guarantee Programme
- 상업금융 : 10년, 총 8억유로

■ ExxonMobil, XTO Energy 총 U$410억에 인수

○ '09년 12월, ExxonMobil은 XTO주주에 대한 25% 프리미엄 지급과, U$100억 규모의 채무 인수 등을 골자로 한 XTO Energy 인수(U$410억) 발표

- 이는 '99년 Exxon-Mobil 합병 이래 최대 규모로서 비전통적 천연가스 분야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

○ 거래 종결 이후, ExxonMobil은 비전통적 자원의 글로벌 개발 생산을 관리할 새로운 채굴 기관 출범 계획

- 기존 XTO Energy의 사업 노하우와 기술력을 이전함으로써, 셰일 가스를 포함한 다양한 비전통적 자원의 시장 변화에 신속한 대응 목적

○ Accenture의 James Bogues 북미 인수합병부장은 "ExxonMobil의 과감한 XTO Energy 인수는 향후 셰일가스 및 비전통적 자원 개발 기술에 대한 가격 책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

△ **XTO Energy社 개요**

- 설립연도 : 1985년
- 재무현황 : 총자산 U$36,255백만, 자기자본 U$17,326백만
- 영업현황 : 매출액 U$9,064백만, 순이익 U$2,019백만
- 주력사업 : 셰일가스 및 탄층가스 등 비전통적 에너지자원 생산·판매
- 매장량 : 가스 45조 입방피트, 석유 387.6백만 배럴
- 생산량 : 일산 6.6만 배럴

- *총괄 정리 및 감수 : 플랜트금융 1팀 팀장 이동환(☎6413), 선임심사역 송오순(☎6406), 심사역 권기영(☎6409)*